

그런 건축 헌금은 하지 마세요

김광년_신내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중경회장



지역 재개발로 교회 건축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교인들의 돈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담임목사인 저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건축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교회 예산 절약, 효율적인 재개발 협상, 교인들의 건축 헌금 봉헌. 그런데 이 일은 건강한 교회론에 근거해야 하기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며 하

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1. 건축 기간에도 건축재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의 본질적인 사역보다 이 일이 앞서서는 안 되기에 건축재정은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표시로 적립된 건축 헌금의 일부를 먼저 성별하여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2. 교인들을 시위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효율적인 재개발 협상을 위해 미리 C.M(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사를 선정하였지만 양원사업단(LH)과의 협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인 가운데는 교우들이 LH 본사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인들을 시위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위 '알박기' (?)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선교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원 사업단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종교부지가 조성되면 가장 먼저 건축할 터이니 새 예배당을 건축 후에 예배당을 철거하기로 가장 먼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단 한 가정도 떠나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3. 그런 헌금은 드리지 마세요-건축헌금 작정의 원칙

교인들은 목사를 만날 때마다 장로님들이 얼마를 작정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돈 많은 순서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식이나 명예의 크기를 헤아려 일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품과 인격 그리고 믿음을 보고 장로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물질적인 기준을 앞세워 장로를 세웠다면 교우들은 저를 샀군 목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려 하니 무조건 장로들이 누구보다 많이 봉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며 건축헌금 봉헌의 원칙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가장 큰 건축헌금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남아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를 봉헌하는 것이 가장 큰 건축헌금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얼마를 작정하고 얼마나 봉헌하였는지 묻지 마십시오. 다만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봉헌해야 하는지를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하지 않는 헌금은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헌금은 봉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부부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봉헌하는 헌금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다섯째, 건축헌금을 작정할 수밖에 없고, 금융권 대출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